

일러두기

1. 『말모이』 소개

『말모이』는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한글학회·네이버·한글과컴퓨터와 함께 펼친 국민참여형 사전이다. 100년 전 ‘말모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미 사라졌거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전국의 옛말과 입말, 방언을 국민의 손으로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방언은 그저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비규범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과 그 지역민의 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방언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사라지고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1. 진행 과정

2019년 10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10개월간 말모이 누리집 (<https://malmoil100.chosun.com>)과 말모이 사무국(상명대 국어문화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국의 방언을 수집한 결과, 온라인으로 22,683건, 오프라인으로 약 70,000건의 말모이가 접수되었다. 오프라인 자료 중에는 자신이 펴낸 사전과 출판물을 참고해 달라고 보내온 책자 형태도 있었고, 손으로 꼭꼭 눌러쓴 한두 장의 편지에서부터 수십 장의 노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말모이는 71인의 지역대표가 검토한 다음, 60인의 국어문화원 연구진과 지역 방언 전문가 등이 정제·검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역대표는 사투리 사전을 편찬한 경험이 있거나 말모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을 대상으로 위촉하였다. 전국 9곳 중 5곳(강원, 경남, 전북, 제주, 충남)에서는 지역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1.2. 『말모이』 편집 원칙

(1) 구성

·각 ‘표제어’는 ‘표제어, 품사, 표준어, 뜻풀이, 용례, 지역정보, 문화정보’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발음 정보와 성조 정보는 개인차·지역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가매 [명사] [가마솔]

아주 크고 우묵한 솔.

예 옥시기를 가매에 푹 삶아 먹자.(옥수수를 가마솔에 푹 삶아 먹자.) (원주)

예 송아지 고기가 가매서 설설 끓어.(송아지 고기가 가마솔에서 설설 끓어.) (양양)

예 들구 당길 조을 망큼 묶어서 가매에다 집어넣어.(들고 다니기 좋을 만큼 묶어서 가마솔에다 집어넣어.) (홍천)

예 개매 밀구영이 솔 밀구영 보고 저 검정 봐라 한다.(가마솔 밑이 솔 밑을 보고 저 검정 봐라 한다.) (삼척)

지역 가마(양양), 가마솔(원주·정선·화천·횡성), 가매(강릉·동해·삼척·양양·원주·인제·정선·평창·홍천), 가매솔(강릉·동해·삼척·인제·정선·평창·홍천), 무새솔(철원), 무솔(고성), 무쇠솔(양구·춘천), 썩솔(영주), 쇠솔(양구), 큰솔(인제·춘천)

문화 솔 중에 크기가 작은 솔을 ‘노구솔’ 또는 ‘새옹’이라고 하는데, 평창에서는 젓밥을 지을 때만 사용하는 작은 낫쇠솔을 ‘새옹’이라고 한다. ‘새옹’은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바닥이 편평하여 생김새부터 ‘가매’와 다르다. 밥을 지을 때 밖으로 김이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 위에 차가운 행주를 올려 놓으면 밥맛이 좋다. - 이동수(평창)

문화 기본적으로 가마와 솔은 다르다. 솔은 뚜껑이 있지만 가마는 뚜껑이 없다. 대신 널빤지를 가마에 맞게 짜서 뚜껑으로 쓴다. 더러는 대나무를 쪼갠 발로 뚜껑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는 솔의

크기에 따라 작은 것은 ‘솔’ 또는 ‘밥솔’이라고 하고, 큰 것은 ‘가마솔’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고성에서는 ‘밥솔’보다 작은 것을 ‘땅솔’이라고 하고, 인제에서는 작은 솔을 ‘노가지솔’이라고 하고, 큰 것을 ‘큰솔’이라고 한다. 춘천에서는 밥솔보다 큰 것을 ‘지북솔’이라고 한다. - 이경진(삼척)

문화 부엌에 3개의 솔을 걸 때는 오른쪽에 ‘가마솔’이나 ‘지북솔’을, 중간에 ‘평치솔’을, 왼쪽에 ‘노구솔’을 걸었다. 2개의 솔을 걸 때는 ‘평치솔’과 ‘노구솔’을 걸었다. 대체로 ‘가마솔’은 사랑방이나 뜰아랫방 등 별채에 거는 경우가 많다. ‘지북솔’은 ‘가마솔’보다 조금 작은 솔으로 평소에는 물을 데우는 데 쓰고, ‘평치솔’은 흔히 ‘국솔’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두기 때문에 ‘가운뎃솔’ 또는 ‘중간솔’이라고 한다. ‘노구솔’은 흔히 ‘밥솔’이라고 하는데 고정시켜 놓고 쓰지 않고 부엌 밖에 걸거나 화롯불에 올려놓고 쓰기도 한다. ‘지북솔’은 ‘소댕(솔뚜껑)’이 있지만 ‘가마솔’은 ‘소댕’이 없다. ‘가마솔’에는 ‘옥가마’와 ‘벌가마’가 있는데, ‘옥가마’는 바닥보다 위쪽이 좁아서 소댕을 만들어 덮어 ‘지북솔’으로 썼고, ‘벌가마’는 바닥과 위쪽 폭이 같아서 ‘통가마’라고도 했는데, 너무 커서 소댕을 만들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해 나무판자로 뚜껑을 만들어 썼다. - 유연선(춘천)

(2) 표제어

- 표제어는 국민이 제보한 어휘 중에 표준어가 아닌 옛말과 방언 중에서 가려 뽑았다. 옛말과 방언이라도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은 제외하지 않았다. 단, 북한말은 방언 외에도 문화어와 신조어(은어 포함)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 표제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소개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가려 뽑았다. 따라서 표제어 중에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형이 아닌 어휘도 포함되어 있다.
- 표제어는 단일어뿐만 아니라 복합어 형태와 관용어 형태도 포함하였다. 다만 조사와 어미 등은 제외하였다.

- 표제어 중에 동음이의어는 어깨번호를 달아 구분하였다.
- 표제어 배열은 현행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는 ‘|’ 뒤에 두었다.
- 표제어는 ‘놀이와 생활’, ‘음식과 맛’, ‘동식물과 자연’, ‘소리·동작·상태·형태’, ‘감정’ 등 5가지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 『말모이』에 수록된 표제어의 수는 4191개이다. 지역별 표제어 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	표제어 수	지역 구분	표제어 수
경기·서울·인천	410	광주·전남	460
강원	433	대구·경북	373
충북	448	경남·부산·울산	434
대전·세종·충남	401	제주	418
전북	406	북한	408

(3) 품사

-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표시하되 복합어 형태와 관용어 형태로 사용되는 표현은 복합어와 관용어로 품사 표시를 하였다.
- 하나의 표제어가 하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될 경우 ‘빗금(/)’을 사용하여 품사를 복수로 표시하였다.

(4) 표준어

- 표준어는 표제어와 의미가 완전하게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어휘를 제시하였다.
- 표준어를 단일어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 표준어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표시하였다.

(5) 뜻풀이

-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표준어와 사투리의 뜻풀이와 다를 경우, 지역대표와 지역 방언 전문가가 그 차이를 밝혀 표제어의 뜻을 풀이하였다. 북한말은 <조선말대사전>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 다의어의 경우 각각의 뜻을 (1), (2), (3)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6) 용례

- 용례는 ‘채록’ 또는 ‘제보’를 토대로 작성하되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형태 음소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 용례 중에 사투리 사전이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연도)’ 형태로 출처를 표시하였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의 사투리 말뭉치 자료는 대부분 구어 말뭉치이므로 ‘형태 음소 표기’를 따르지 않고 있으나 표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 북한의 용례는 ‘채록’이 불가능하고 ‘제보’마저 제한적이므로 문학작품에서 일부 용례를 찾아서 제시하였는데, 용례를 문학작품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연도)’의 형태로 출처를 표시하였다.
- 용례마다 표준어 뜻풀이를 제시하되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는 표제어는 표제어에 작은따옴표를 달아 뜻풀이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뜻풀이가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의역을 하였다.
- 용례마다 ‘채록’ 또는 ‘제보’ 지역을 ‘시군’ 단위로 표시하였다. 단, 제주도의 경우, ‘시군’ 단위가 아니라 ‘동’ 또는 ‘리’ 단위로 표시하였고, 북한의 경우 새터민을 대상으로 용례를 채록한 경우 해당어휘를 사용한 제보자의 고향을 표시하였다.
- 용례는 표제어마다 다양한 변이형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표제어 용례 외에도 다양한 변이형의 용례를 모두 제시하였다.

(7) 지역정보

- 표제어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동일 지역 내 변이형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 지역정보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종합정보 서비스를 참고하되, 국민과 국민대표, 지역 방언 전문가 등의 요청에 따라 일부 지역을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였다.

(8) 문화정보

- 문화정보를 국민 또는 지역대표가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출생지)’의 형태로 출처를 표시하였다.
- 문화정보를 사무국 또는 지역 방언 전문가가 제보한 경우에는 따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 문화정보를 문헌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연도)’의 형태로 출처를 표시하였다.
- 문화정보를 국민 또는 지역대표가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 방언 전문가 등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경우라도 그것이 제보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혔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 지역대표 중에 출생지 외의 지역 표제어에 대해 문화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보자(출생지)’의 형태로 출처를 표시하였다.

1.3. 『말모이』의 의의·한계

(1) 의의

- 지역 방언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대면 방식으로 사투리를 채록하는 전통적인 사투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 방언조사질문지와 같은 일정한 형태의 질문과 답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아서 이제까지 구축된 사투리 자료와 중복되지 않은 어휘가 많이 조사되었다.
- 제보자(국민과 지역대표 등)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하여 정리한 1차 자료를 가공함으로써 자료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점차 사투리가 사라져가는 속도를 감안할 때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가공하

여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투리 용례의 ‘채록’ 또는 ‘제보’ 장소를 도 단위로 표기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세분하여 표시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동’ 또는 ‘리’ 단위로 표시함으로써 사투리 사용 지역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 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투리를 각각의 표제어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나머지 다양한 형태의 변이형은 용례와 지역정보에 따로 제시하였다.

(2) 한계

- 『말모이』는 학술적인 연구 결과물이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방언과 옛말 말모이를 만들어보자는 기획 의도에 따라 수집된 접수된 전국의 사투리 말뭉치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 말모이를 제보한 국민 중에 문장의 형태로 표제어 용례를 제시하거나 어원 및 문화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제보자가 많지 않았기에 수집된 자료를 정제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2. 『말모이』 편집위원회

2.1. 사무국

김미형(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박정미(전 전주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서은아(상명대 계당교양교육원 교수)

※ 자료입력·정리(구민경, 권윤서, 김선진, 박예은, 송지원, 송치영, 신현경, 양승민, 유재령, 이다빈, 이수아, 전해연, 정윤지)

2.2. 지역별 사투리 조사·선정·정제·검수 위원

(1) 경기·서울·인천

최창원(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한성우(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2) 강원

김봉국(부산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

심보경(한림대 일송자유교양대 교수)

최영미(경동대 온사람교양교육대 교수)

허은종(청봉초 교사)

(3) 대전·세종·충남

김미형(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문병열(한남대 국어국문창작학과 교수)

박원호(한남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우태균(한남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윤보경(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4) 충북

권예란(충북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김경열(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호승(충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충덕(충북대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

한성숙(충북대 국어문화원 선임연구원)

(5) 전북

고은미(전주대 국어문화원 전임연구원)

서정섭(전주대 국어문화원 부원장)

손시은(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수라(전주대 교양학부 시간강사)

이화영(전주대 교양학부 시간강사)

(6) 광주·전남

김현(전남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손희하(전남대 국어국문과 교수)

오청진(목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위평량(금호중앙여고 교사)

이창남(목포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7) 경남·부산·울산

권경희(동아대 기초교양대 교수)

김영선(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김정대(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노경아(울산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박진아(울산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박주형(동아대 국어문화원 특별연구원)

신기상(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

유필재(울산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윤주희(동아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8) 경북

김덕호(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진웅(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배은혜(경북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신승원(한국방언연구소 소장)

이재섭(경북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이철희(경북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최은숙(경북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황지윤(경북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9) 제주

강영봉(전 제주대 교수)

김보향(제주대 국어문화원 연구원)

신우봉(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대희(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10) 북한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원장)

서현정(세종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소신애(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엄인영(세종국어문화원 연구원)

정성현(세종국어문화원 인문학연구소장)

한용운(<언어과학> 실장, 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실장)

2.3. 지역대표

(1) 경기·서울·인천

김준기(수원시인협회 회장, 「수원문학」 편집주간)

윤용완(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단장, 우리문화재보호회 회장)

이인환(도서출판 이안 대표, 한국동요사랑협회 자문위원)

이현우(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산문화원 향토사 전문위원)

조성문(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허현무(광주학연구소 소장)

(2) 강원

김성영(전 양양초등학교 교장)

김인기(방언연구가, 「강릉방언대사전」 저자)

남동환(고성군 간성읍 상2리 이장, 「강원고성신문」 시민기자)

신승엽(강원수필문학회 이사, 전 영월부군수, 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유연선(한국문인협회 회원, 전 홍천초등학교 교장)

이경진(강원문인협회 회원, 전 강원도청 농정국장)

이동수(청명 CMS 대표)

이창균(금와농원 대표, 전 인제군 세무회계과장)

임병순(철원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전 철원군청 문화예술계장, 전 김화읍장)

최길시(전 분당중학교 교장, 전 교육부교육진흥원 연구사)

최원희(정선문화원 사무국장)

(3) 대전·세종·충남

권선옥(논산문화원 원장, 전 충남문인협회 회장)

김국명(전 서예학원 원장)

김병섭(방언연구가, 사전 집필 중)

안용산(금산문화원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명재(방언연구가, 「예산말 사전」 저자, 충청언어연구소 소장, 충남 작가회의 이사)

임영수(연기군 향토박물관 관장, 전 조치원문화원 사무국장)

장경윤(방언연구가, 「정다운 우리말 서산 사투리」, 전 음암중 교장)

조일형(방언연구가, 「지랑이 뉘래유」 저자, 전 당진시 교육청 장학사, 전 당진초 교장)

(4) 충북

김동원(방언연구가, 「청풍명월 사투리만세」 저자, 한국문인협회 이사)

김동원(한국문인협회 이사, 전 충북시인협회 부회장)

김병구(충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국립충주박물관건립 추진위원)

김희찬(충북향토사연구회 사무국장, 전 충주 MBC 작가)

박경일(음성문화원 사무국장)

박진수(보은군 문화재지킴이 사무국장,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홍철(정미디어 대표, 전 제천문화원 사무국장)

(5) 전북

김진돈(전주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국가기록원 민간사료조사위원)
배순향(완주문화원 사무국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유재두(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전북작가회의 회원)
이갑상(공공성강화 정읍 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장교철(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 이사장)
최규홍(향토사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최병선(임실문인협회 회원)

(6) 광주·전남

오덕렬(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 이사장, 생오지문예창작대 교수, 전 공주고 교장)
유현(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회장, 전 목포MBC PD·보도제작국장)
이대흠(목포대 평생교육원 교수, 전 천관문학관장)
조년환(전 경찰관)
조선희(전남문인협회 감사, 호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
주광현(전남문인협회 이사, 전 전남문인협회 부회장, 전 전남수필협회 회장)

(7) 경남·부산·울산

강위생(부산온종합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의학물리과장, 전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현석(창원 일동교회 담임목사)
김성재(방언연구가, 겨레말큰사전 남북사전공동편찬위원회 경남방언집필)
김승호(사단법인 경남방언연구보존회 회장, 전 동의중 교장)
김영수(전 장충고 국어교사)

김의부(거제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전 환경단체 초록빛깔사람들 대표)
백만기(통계청 자체업무평가위원, 전 호남지방통계청장)
성기각(전 경남대 연구교수, 전 창녕문인협회 회장)
안태봉(부산사투리보존협회 회장, 전 경기대 교수)
조성덕(전 창원남양초 교장)
조용하(창신대 명예교수, 울산사투리보존회 회장, 외솔회 울산지회 이사)
조재원(거창문화원 연구사, 거창문학회 사무국장)

(8) 경북

고성환(문경문화원 사무국장, 「문경매일신문」 편집국장, 문경사투리보존회장)
권태호(아파트 관리소장)
김정원(한국시인협회 회원, 전 성균관대·명지대 강사)
김주득(전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상희구(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 전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
유정우(아파트 경비원)

(9) 제주

강명언(서귀포문화원 원장)
김동필(제주어보존회 이사, 제주전통목기구연구소 대표)
김영찬(제주어보존회 회장)
김미성(서귀포문화원 사무국장)
변명수(홍천중 과학교사)
송심자(제주도 문화관광해설사)
현임종(전 기업은행 지점장, 전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참고문헌

■ 사전·조사보고서

- 강영봉(2005). 제주지역어전사보고서 제주시 한경면. 국립국어원.
- 강영봉(2006). 제주지역어조사보고서 서귀포시 호근동. 국립국어원.
- 강영봉(2008). 제주지역어조사보고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국립국어원.
- 강영봉(2009). 제주지역어조사보고서 서귀포시 색달동. 국립국어원.
- 강영봉(2012). 제주지역어전사보고서 한경·서귀포(호근)·구좌. 국립국어원.
- 강정희(2008). 민족생활어조사 11. 국립국어원.
- 강정희(2009). 민족생활어조사 11. 국립국어원.
- 강정희(2011). 민족생활어조사 5. 국립국어원.
- 강정희(2012ㄱ). 민족생활어조사 3. 국립국어원.
- 강정희(2012ㄴ). 민족생활어조사 5. 국립국어원.
- 김무식(2007). 경북지역어조사보고서 고령. 국립국어원.
- 김무식(2008). 경북 청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 김무식(2011). 경북지역어조사보고서 봉화. 국립국어원.
- 김무식(2012). 경북지역어조사보고서 경주·상주·청송·고령. 국립국어원.
- 김봉국(2006). 강원지역어조사보고서 양양군. 국립국어원.
- 김봉국(2010). 강원지역어조사보고서 삼척·원주·양양·홍천·평창·인제. 국립국어원.
- 김봉국(2011). 강원지역어조사보고서 정선군. 국립국어원.
- 김봉국(2012). 강원지역어전사보고서 삼척·원주·양양·홍천. 국립국어원.
- 김성재(2018). 방언 속에 내 고향이 있었네. 박이정.
- 김순자(2018). 제주어구술자료집 15 남원읍 수망리. 제주학연구센터.
- 김순자·김미진(2019). 제주어구술자료집 25 남원읍 태흥리. 제주학연구센터.
- 김인기(2014). 강릉방언대사전. 도서출판 동심방.
- 김정대 외(2017). 경남방언사전. 불휘미디어.
- 김정원(2018). 사라져가는 내 고장말 찾기. 세원문화사.

- 김종도·김우태(2005). 남해사투리사전. 남해신문사.
- 김준영(2007). 입에 익은 우리말. 학교재.
- 김회룡(2006). 하동의 토속어. 하동문화원.
- 박경래(2005). 충북지역어조사 보고서 제천시. 국립국어원.
- 박경래(2006). 충북지역어조사 보고서 청원군. 국립국어원.
- 박경래(2007). 충북지역어조사보고서 충주시. 국립국어원.
- 박경래(2009). 충북지역어조사보고서 보은군. 국립국어원.
- 박경래(2012). 충북지역어전사보고서 제천·청원·충주. 국립국어원.
- 박경래(2013). 충북지역어전사보고서 보은·옥천·영동. 국립국어원.
- 박찬식(2017). 제주어구술자료집 1 제주시 도련1동. 제주학연구센터.
- 상희구(2015). 대구시지. 오성문화.
- 성기각(2019). 창녕방언사전. 복인.
- 소강춘(2005). 전북지역어조사보고서 남원시. 국립국어원.
- 소강춘(2006). 전북지역어조사보고서 무주군. 국립국어원.
- 소강춘(2007). 전북지역어조사보고서 군산시. 국립국어원.
- 소강춘(2008). 전북지역어조사보고서 고창군. 국립국어원.
- 소강춘(2009). 전북지역어조사보고서 임실군. 국립국어원.
- 소강춘(2012). 전북지역어전사보고서 남원·무주·군산·고창. 국립국어원.
- 소강춘(2013). 전북지역어전사보고서 무주군. 국립국어원.
- 송인만(2012). 합천 지방의 말. 합천문화원.
- 신기상(2013). 울산방언사전. 북스힐.
- 안태봉(2003). 부산사투리사전. 삼아.
- 오홍일(2003). 전남 무안 지역의 방언사전. 무안문화원.
- 이경진(2015).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갑(2005).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곡성군.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6).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진도군.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7).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영광군.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8).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보성군.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9).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영암군.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0).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곡성·진도·영광·보성·영암·신안.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1).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광양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2).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신안·곡성·진도·영광.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3).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보성·영암·신안·광양.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9). 전남지역어조사보고서 신안군. 국립국어원.
- 이명재(2012). 예산말 사전 1. 이화.
- 이명재(2013). 예산말 사전 2. 신원.
- 이명재(2015). 충청도말이야기. 예산문화원.
- 이명재(2016). 예산말 사전 3. 이화.
- 이명재(2019). 예산말 사전 4. 예산문화원.
- 이상규(2005). 경북지역조사보고서 상주. 국립국어원.
- 이태영(2000).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신아출판사.
- 전라북도(2018). 전라북도 방언사전. 전라북도.
- 정경일(2017). 논산 지역의 언어. 논산문화원.
-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조성하(2019). 울산옛말. 디자인하다.
- 조숙정(2007). 민족생활어조사 6. 국립국어원.
- 최명옥(2005). 경기지역어조사보고서 화성시. 국립국어원.
- 최명옥(2008). 경기지역어조사보고서 양평군. 국립국어원.
- 최명옥(2009). 경기지역어조사보고서 이천군. 국립국어원.
- 최명옥(2012). 경기지역어조사보고서 용인·화성·포천·파주. 국립국어원.
- 최명옥(2013). 경기지역어조사보고서 포천·파주·양평·이천. 국립국어원.
- 한성우(2011). 경기지역어조사보고서 강화군. 국립국어원.
- 한영목(2005). 충남지역어조사보고서 대전시. 국립국어원.
- 한영목(2006). 충남지역어조사보고서 논산시. 국립국어원.
- 한영목(2007). 충남지역어조사보고서 서천군. 국립국어원.

한영목(2008). 충남지역어조사보고서 예산군. 국립국어원.
 한영목(2009). 충남지역어조사보고서 서산군. 국립국어원.
 한영목(2011). 충남지역어조사보고서. 국립국어원.
 한영목(2012). 충남지역어전사보고서 공주·대전·논산·서천.
 국립국어원.
 한영목(2013). 충남지역어전사보고서 예산·서산·천안. 국립국어원.

■ 문학작품

강키미(1986). 「표창장」. 『조선문학』 1986년 2월호. 문예출판사.
 강선규(2008). 『달라진 선택』. 문학예술출판사.
 강일주(1997). 「룡암산의 화불」. 『조선문학』 1997년 12호.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강현심(1994). 「왜 소동을 피웠는가」. 『문화어학습2』. 사회과학출판
 사.
 경석우(2004). 『아버지의 마치』. 금성청년출판사.
 고병삼(1973). 「사랑」. 『조선문학』 1973년 1월호. 문예출판사.
 고상훈(1992). 「첫자리」. 『은정』. 금성청년출판사.
 길성근(2014). 『축구소녀』. 금성청년출판사.
 김경모(1979). 『청산의 매』. 연변인민출판사.
 김광남(2007). 「탄부의 보금자리」. 『직동의 숨결』. 금성청년출판사.
 김금옥(2008). 「강산의 환희」. 『청년문학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대성(1988). 「합수목에서」. 『조선문학』 1988년 5월호. 문예출판사.
 김대성(2004). 『내땅』. 문학예술출판사.
 김도환(2010). 「소백수는 얼지 않는다」. 『명사수』. 문학예술출판사.
 김동욱(2014). 『대홍단』. 문학예술출판사.
 김동호(2010). 『거목의 뿌리』. 문학예술출판사.
 김룡연(2014). 『보검』. 문학예술출판사.
 김병훈(2002). 「빈말은 없다 련속소설」. 『조선문학』 2002년 1호. 문
 학예술종합출판사.
 김봉철(2009). 「력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녀사의 소원』. 문학
 예술출판사.

김삼복(2011). 『대지의 딸』. 문학예술출판사.
 김상복(2009ㄱ). 「꽃은 계속 핀다」. 『선군시대 청년들2』. 금성청년출판사.
 김상복(2009ㄴ). 「정든 집」. 『선군시대 청년들2』. 금성청년출판사.
 김상현(1998). 「감자꽃 필무렵」. 『조선문학』 1998년 2월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성운(2007). 「생활의 박동」. 『청년문학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성호(1999). 「대포」. 『소리없는 웨침 난옥아』. 연변인민출판사.
 김성호(2005). 「수박즙을 추는 꽃사슴」. 『혜광비운』. 연변인민출판사.
 김영석(1955). 「이청년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1955년 2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김영희(2004). 「냉이」. 『조선문학』 2004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김영희(2014). 「붉은 감」. 『불의 약속』. 문학예술출판사.
 김용식(1984). 『산골녀성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김용한(2010). 『기쁨』. 문학예술출판사.
 김원필(2008). 「옥황상제의 분노」. 『고주몽』. 금성청년출판사.
 김응일(2011). 『비약의 열풍』. 문학예술출판사.
 김정(2001). 『따뜻한 도시』. 금성청년종합출판사.
 김정(2008ㄱ). 「1학년생(제6회)」. 『아동문학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정(2008ㄴ). 「1학년생(제9회)」. 『아동문학1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정(2008ㄷ). 『인생의 악보』. 문학예술출판사.
 김정민(1979). 「전사는 살아있다」. 『조선문학』 1979년 3월호. 문예출판사.
 김정민(1993). 「망이」. 『천리마5』. 천리마사.
 김정현(2011). 『그들의 청춘시절』. 금성청년출판사.
 김지원(2000). 「김치와 민속(3)」. 『천리마2』. 천리마사.
 김창수(1998). 「보통날의 하루」. 『조선문학』 1998년 8월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창옥(1988). 「숙영차는 어디까지 왔는가」. 『조선문학』 1988년 12

월호. 문예출판사.

김청남(2014). 「첫 출발」. 『밤나무집 아들』. 문학예술출판사.

김하늘(2013). 『함께 사는 사람들』. 문학예술출판사.

김학예(1996). 「출로」. 『천리마12』. 천리마사.

김학철(1999). 『걱정시대』. 연변인민출판사.

김형운(2010). 『금빛마차』. 금성청년출판사.

김혜성(2007). 『별하늘』. 문학예술출판사.

김혜영(1999). 「다시 본 모습」. 『조선문학』 1999년 1월호.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김호석(1977). 「새과업」. 『붉은 노을 비껴온다』. 문예출판사.

김홍철(2006). 「우리 집 다리아」. 『청년문학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홍철(2010). 『떡갈나무』. 문학예술출판사.

남경환(1986). 「그해 10월과 11월」. 『천리마1』. 천리마사.

로정범(1989). 「비오는 들에서」. 『조선문학 1989년 1호』.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리금순(1990). 「얼굴살갓과 화장」. 『천리마1』. 천리마사.

리기영(2014). 『두만강』. 문학예술출판사.

리동구(2011). 『비약의 나래』. 문학예술출판사.

리동운(2014). 『해서바람』. 근로단체출판사.

리령철(2013). 『아리랑』. 문학예술출판사.

리병수(1981). 『붉은 지평선』. 문예출판사.

리빈(2007). 『홍범도』. 금성청년출판사.

리순옥(1996). 「여름철 건강관리」. 『천리마7』. 천리마사.

리영환(2007). 「삼봉풍경」. 『청년문학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리재준(1996). 「집과 세월을 두고」. 『조선문학』 1996년 9호. 문학예
술종합출판사.

리정수(2001). 「산촌의 물소리」. 『조선문학』 2001년 6호.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리종성(2008). 「누구나 즐겨 찾는 집」. 『천리마2』. 천리마사.

리창봉(2007). 「우리 토끼」. 『아동문학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리태수(1996). 「조각달 둥근달」. 『사랑은 S』. 료녕민족출판사.

림길명(2014). 『발파소리』. 문학예술출판사.

림영(2002). 「스승에 대한 회상」. 『조선문학』 2002년 10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림원춘(1996). 「눈물젖은 숲」. 『조선문학』 1996년 12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맹성재(2010). 「고향의 버드나무」. 『불꽃훈장』. 금성청년출판사.

문상봉(1995). 『봄날의 미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문상봉(2010). 『딸에게서 온 편지』. 문학예술출판사.

박경철(2008). 「안해의 기쁨」. 『청년문학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성보(2006). 「가을별」. 『청년문학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승극(2010). 「술」. 『비오는 길』. 문학예술출판사.

박승록(2003). 「두사람의 대화」. 『조선문학』 2003년 3호. 문학예술출판사.

박영건(2009). 「련광정」. 『청년문학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장광(1998). 「넋을 찾으라」. 『조선문학』 1998년 11월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박찬은(2001). 「복주머니」. 『조선문학』 2001년 10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배민옥(1984). 「세월」. 『조선문학』 1984년 1월호. 문예출판사.

백현우(2014). 『불을 다루는 사람들3』. 문학예술출판사.

변희근(1978). 『생명수』. 문예출판사.

서영일(2002). 「함경도지방특산음식」. 『천리마7』. 천리마사.

서영일(2003). 「개성지방특산음식」. 『천리마5』. 천리마사.

석남진(2014). 『너를 사랑하기에』. 문학예술출판사.

손광영(1995). 「신기령」. 『조선문학』 1995년 7월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손룡호(2002). 「누가 흥수인가」. 『아름다운 리별』. 연변인민출판사.

손응준(1979). 『해숫는 바다』. 문예출판사.

송윤금(2008).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부름말례절」. 『문화어학습4』. 사회과학출판사.

신종봉(1979). 『갈매기근위대』. 금성청년출판사.

신종봉(1987). 『여름바다』. 금성청년출판사.
 안동춘(2001). 『50년 여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오영재(1982). 「떼목을 타고 105리」. 『천리마10』. 천리마사.
 유복덕(2002). 「감자역병에 대하여」. 『천리마6』. 천리마사.
 윤경찬(1992). 「매력」. 『영광의 날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윤원삼(1989). 「인생의 요람」. 『절정』. 문예출판사.
 윤원삼(2011). 『불새』. 문학예술출판사.
 윤인수(2001). 「민족의 자랑-개성특산음식(2)」. 『천리마12』. 천리마사.
 장수근(1989). 「어머니」. 『조선문학』 1989년 8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장혁(1994). 「운동회날」. 『고향의 모습』. 금성청년출판사.
 전종섭(2009ㄱ). 「구룡폭포와 구룡담」. 『룡문대굴의 거부기』. 금성청년출판사.
 전종섭(2009ㄴ). 「큰자랑덕과 작은자랑덕」. 『룡문대굴의 거부기』. 금성청년출판사.
 전철호(2014ㄱ). 「잔재간을 믿고 허욕을 부리다가」. 『돈항아리』. 금성청년출판사.
 전철호(2014ㄴ). 『산당화』. 평양출판사.
 전철호(2014ㄷ). 『혜초려행기2』. 문학예술출판사.
 정기종(1999). 「력사의 대하」. 『천리마11』. 천리마사.
 정기종(2008). 『열병광장』. 문학예술출판사.
 정영종(2007). 『숲의 노래』. 문학예술출판사.
 정춘근(2012). 『황해』. 작가마을.
 정춘식(2014). 「너도밤나무신동과 공경부인」. 『돈항아리』. 금성청년출판사.
 조나미(2005). 「우리 말의 시간」. 『조국은 어머니』. 문학예술출판사.
 조명희(1991). 『락동강』. 문예출판사.
 조인영(2014). 『생명』. 문학예술출판사.
 조정서(1996). 「단풍계절」. 『조선문학』 1996년 11월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천석근(1980). 「국수」. 『천리마6』. 천리마사.

최능선(1994).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 『문화어학습4』. 사회과학출판사.

최성진(1988). 「자연을 길들이는 사람들」. 『조선문학』 1988년 3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최성진(1997). 「백두산으로」. 『조선문학』 1997년 1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최성진(2001). 『내 나라』.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최성진(2010). 『숲으로 간 사람』. 문학예술출판사.

최순근(2004). 「식생활과 웃음꽃」. 『천리마7』. 천리마사.

최치성(2006). 「백살이 넘을 때까지」. 『아동문학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최홍일(1999). 『눈물젖은 두만강』. 민족출판사.

하명섭(1994). 「섬나라 『번영』의 기초에」. 『천리마4』. 천리마사.

한경식(2006). 「생활이 비긴 흥미있는 세부탐구」. 『조선예술12』. 문학예술출판사.

한고갑(1961). 「평범한 나날」. 『조선문학』 1961년 5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한기석(1994). 「조국의 모습」. 『고향의 모습』. 금성청년출판사.

함동건(1991). 「충무공이 운다」. 『천리마9』. 천리마사.

함용길(2014). 「은반우의 오각별」. 『금메달과 위훈』. 금성청년출판사.

허문길(2002). 「포성없는 전구 제1부 아침노을」. 『천리마12』. 천리마사.

허춘식(2004). 『인간의 한생』. 문학예술출판사.

현덕(2009). 「경칩」. 『꽃피었던 섬』. 문학예술출판사.

현명수(2007). 「삶의 시작점」. 『청년문학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현승남(2014). 『푸른 꽃망울』. 금성청년출판사.

홍석중(2007). 「폭풍이 큰 돛을 펼친다(4)」. 『천리마8』. 천리마사.

황순희(2000). 「처창즈의 봄」. 『천리마5』. 천리마사.

황용국(1983). 『이땅을 사랑하라』. 문예출판사.

※ 『말모이』의 오류를 제보하거나 추가 말모이를 제공하실 분은 조선일보 (malmoi@chosun.com)나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daye4994@smu.ac.kr)으로 연락주세요.